

배경식 | 한일장신대학교 교수・조직신학/목사・봉상교회

## 깔뱅의 교육사상과 신학실천

- 야고보 1:27 -

**필자**가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인 1970년대 중반 어느 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던 모 교수님께서 신학의 전반에 걸쳐 설명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신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학에는 어느 분야가 있으며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당시에 신입생으로서 회답이 시험과 과제물 작성에 쓰기며 분주하게 살아가던 때 이었으나 교수님의 말씀이 신학 학제에 대한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신학의 체계를 세웠어야 하는데 나 역시 정해진 시간에 밀려 살아오는 동안 짜집기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책감을 갖는다. 신대원 1학년 때 회답어 공부와 과제물 작성, 2학년 때 히브리어 공부와 과제물 작성 그리고 3학년 때는 졸업논문과 임지 결정으로 매우 바빴다는 회상을 해 본다. 더욱이 신대원 2학년 가을 학기는 군부 독재에 의한 전국대학의 휴교령이 내려져 3일간 공부를 했을 뿐이다. 지금 돌아보면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신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론적으로 다루어 주셨다는 생각이 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designing theology)은 예수 그

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평생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내 자신과 후학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는 미국 남장로교가 세운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깔뱅의 신앙적인 체계를 기독교 강요에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그의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과 루터의 요리문답의 틀을 갖는 교리서로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을 총 망라하는 신학의 기본 교과서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까지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신학의 교과서로 간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다.

그렇다면 깔뱅을 신학자와 개혁자로만 볼 것인가? 그를 조금 더 내면적인 면에서 연구해 보면 목회자적 사랑과 정열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의 기독교 강요 역시 서문에 의하면 “배움이 열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돋기 위해 쓴다”라는 표현을 보면 개인 영혼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적 모습을 그에게서 보게 된다.”

깔뱅과 신학의 실천을 논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세계화가 가져온 객관적인 교육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고 신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이것을 깔뱅에게 적용시켜 보려 한다.

### 1. 교육 부재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교육의 부재현상이 있는 사회 같이 보여 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서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희생과 봉사가 보여 지기는 보다는 이권과 집단 이기주의가 이 사회의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자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 역시 그들도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의심이 들곤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부터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을 때가 종종 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아닐까?

입시홍보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가보면 수업시간에

1. 고 김이태 교수 저작 출판위원회, 중심에서는 신학(서울: 장신대출판부, 1994), 29쪽.

많은 학생들이 책상에 엎디어 잠을 자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직접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고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물어 본 적이 있다. 이 학생들이 다시 우리 대학에 들어와 교양 시간에 잠을 잤는데 필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이들의 잠을 깨운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우리가 스승들을 흡모하며 학교에 다녔던 지난 60년대 하고는 거리감이 너무 나 있음을 알게 된다. 더구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10교시 수업은 아예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의 수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든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하루에 어찌 10시간 이상 날마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외국의 선진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자유롭게 체육이나 예술에의 참여를 하면서 창의적으로 자라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입시 지옥이라는 판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다.

대학의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요즈음은 신문 지상을 통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해가 지나 갈수록 이런 사실들이 대학 강단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모 어느 대학은 신입생으로 하여금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일기쓰기를 의무화 시킨다고 하는 데 그것은 그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 과정 가운데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sup>2)</sup>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의 꿈만 같던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70년대의 경제 성장을 통한 한동안 경제적인 풍요를 80년대에 누리는 듯하다가 국민 총 생산액 단불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유화와 외국 상품 개방이 라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더니 국제구제금융이라는 치욕적인 외국의 신탁 경제 간섭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국가의 경제권을 외국인들에게 송두리째 넘겨줌으로써 그들이 우리 금융의 열쇠를 자신들의 손에 쥐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었다. 아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돌이켜 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의

2. 참조. 조선일보, 2002년 2월 27일자, 10면. 일기 쓰는 용인 송담대: 이 대학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일기를 1년간 검사한다고 한다. 석남일기라고 불리 우는 일기쓰기는 교양국어 학점의 필수 과목으로서 95년 개교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한다. 일기쓰기를 통해 교수와 학생의 대화의 채널도 된다고 한다. 연세대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글쓰기가 지난 90년대 초부터 있어왔으며 독일 뮤빙엔대학에서는 자국의 학생들을 위한 독일어 말음을 제대로 하기 과목이 설강되어 필자가 지난 80년대 초 유학시절에 참여 한바있다.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국력이 경제라고 하던 그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적인 편리함이 가져온 것들은 과연 혁명적인 것들이었다. 전기가 밤을 낮으로 바꿔주고 전자제품들과 자동화, 대량생산, 마이카 시대 그리고 외국여행 자유화가 사람들의 여가선용과 여유시간을 풍족하게 해 주었다. 그 여파로 주 5일 근무제 생활을 위해 한국의 양대 민주, 한국노총이 총 집결하여 교통대란까지 불사하고 테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은 부정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또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차별화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 공기업의 민영화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시집 오셔서 한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눈, 밭에서 일하고 가정 일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던 또순이들 이셨다. 아버지들은 논밭을 팔아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허리가 휘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알뜰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다. 밥은 전기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전기냉장고, 선풍기에다가 힘든 일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이 도맡아한다. 모든 것이 자동화, 전산화 되어있는 지금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전 같지 않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간의 삶의 질이 지난 60년대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 졌는지 모른다.

모든 것이 자동화 되고 편리해진 지금 우리는 과연 모두 행복 한가라고 묻고 싶다. 물론 우리가 60년대로 되돌아 갈 필요는 없으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가족과 이웃과의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고 서로 모여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며 자연 속에 어울려 들어가 자연이 갖는 신비스러움을 마음껏 나눌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자연 역시 상품화 되어 버려 그 가치를 잊고 말았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상 그 자체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시는 어머니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아버지가 그렇다.

인간은 원래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 개인과 이웃, 자연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sup>3)</sup>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린 이웃이 없음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내가 살

3. 배경식,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화를 통한 목회 상담과 설교", 이상운 편지, 미래목회를 위한 가정과 기독교 문화, 이상운목사 회갑기념 논문집(서울: 한들출판사, 2001), 109쪽. 인간을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갖는 사회적 존재로 보는 것은 17세기 계몽주의 이후 신과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던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과 인간의 동반자인 자연과 교제를 가지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기 위해 부모와 친척 그리고 친구마저 경쟁자가 된다면 얼마나 살벌한 일인가? 시장 경제적인 면에서 과거의 우방이 경쟁국가로 변모했다면 이러한 경쟁적인 삶 자체가 개인을 떠나 이제는 국가적인 면에 까지 확대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의 결과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살기 위해 내가 먼저 존재한다는 우리의 가치관은 나 자신과 이웃, 자연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상처는 더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고 병든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들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충격을 주며 충격이 큰 만큼 연쇄적인 상처와 충격이 가해진다.

## 2. 깔뱅의 교육사상과 신학적 실천

깔뱅의 교육사상과 신학적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신앙과 신학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적이다.

### ◆ 하나님 중심

깔뱅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그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이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구로서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렘 9:24)를 듣다. 그의 정치적 권위와 근거는 다른 여타의 철학이나 국가, 사회,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국가 통치의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류와 교회의 위치를 보호하며, 우리의 생활을 인간사회의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체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케 하는 것이

4. 깔뱅, 영한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국가통치, 961쪽.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그의 신학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이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구로서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렘 9:24)를 듣다. 그의 정치적 권위와 근거는 다른 여타의 철학이나 국가, 사회,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정치사상은 인문주의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학적임을 알게 된다.

다.”<sup>5</sup> 이렇게 볼 때 그의 정치사상은 인문주의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학적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깔뱅의 현실적인 시민정부관을 보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세속의 통치권이 결코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왕은 왕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산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교회와 국가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국가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에 더하여 올바른 교리와 예배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를 형벌하는 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국가는 그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에 준거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sup>

#### ● 성경 중심

깔뱅은 성경과 교부들의 저서들, 주석서 들을 계속 읽고 인용함으로서 기독교 강요를 보충하였다. 제 1판은 그의 나이 27세인 1536년부터 시작하여 제 2판은 1539년 그리고 제 3판은 1543년에 출간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심오한 사상가, 지혜로운 조직가, 위대한 학자, 성경중심의 교육가, 그리고 방대한 저술가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는 은총의 교리를 강조한 어거스틴의 영향이 교회론에 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된다. 존 크리소스토의 영향은 제 2판부터 나온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가르침을 받은 마틴 부처(M. Bucer)의 영향력 가운데 예정론은 기독교 강요의 초판과 재판을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그의 교리문답(1537-38)과 로마서 주석(1539)에서 확실하게 보여 진다. 특히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프랑스인을 위한 소규모 회중 목회기간(1538-1541)이 주던 경험은 교회의 본질과 훈련, 기독교적 경배와 친송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를 갖게 하였다.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이며 행정적인 체계를 동원하여 교회, 법원, 학교의 심방 그리고 광범위한 서신교환 이 모든 활동이 기독교 강요를 목회신학이 되게 하였다.

기독교 강요를 그는 평신도들이 읽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더 잘 이

5. 성가서, 36쪽.

6. J. L. 나이브, 기독교교리사, 서남동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434쪽.

해하기 위해 썼다. 그리고 성경의 참된 이해는 성령에 의한다고 말한다(1:7, 3:2). 루터에게서도 보여 지듯이 구약의 인물들을 그는 전기(傳記)와 동일시함으로서 성경해석에 경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독교 강요와 시편주석에 나오는 다윗을 본받아(Imitatio Davids)는 그 한 예이다.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게 하였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깔뱅의 영혼 상태(status animae)를 가장 잘 반영해 준다. 시편 주석의 서문(1555-57)에서 밝힌 대로 자신의 개종과 신앙적 성장에 대해 그는 로마서 1:18-25을 든다. 진실과 거짓의 대립 그리고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두 지식의 가정은 이 구절에서 유래 한다.

기독교 강요는 경건의 책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자는 한 인간의 진실한 노력이며 간절한 바램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거배하시는 왕이시다”가 그 주제이다. 진정한 왕권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프랜시스 1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것을 언급한다.

그는 바젤의 피난처에서 소르본 대학의 가톨릭 신학부의 기독교신앙을 반대하였으며 동시에 무정부적인 열광적 신앙을 가진 재침례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있다.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받는 정치적, 교회적 위기를 변증하는 변증서이기도 한다. 그러나 깔뱅은 일차적으로 법을 전공했으며 성서를 체계화 시켰다. 철학, 논리학, 수사학 등 모든 조직에 필요한 것들은 이차적 도구들이다. 항상 깔뱅의 사고 속에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다.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보면 평신도들을 위한 개신교신앙과 신학에 대한 교육적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런가를 알 수 있다. 제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제 2권은 그리스도와 구원, 제3권은 성령의 역사, 제 4권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시민 정부로 되어 있다.

#### • 그리스도 중심

깔뱅은 구원의 길이 교회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인가

7. 기독교강요 제1권, 전개서, 26쪽 이하.

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거룩한 교부들의 승인과 오랜 전통을 개신교도들의 새로 만든 교의가 부정한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종파들과 불온한 소련들과 방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깔뱅은 성경의 재발견과 교의의 체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으로 말한다. “우리들의 확신은 정반대의 것으로서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sup>8)</sup> 여기에서 순교적인 결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중세의 신학의 중심은 구원론(soteriology) 이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문제가 중심사안 이었다.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자극을 준 것 역시 로마 가톨릭의 구원을 이루는 지름길인 고해제도와 이에 연관된 면죄부 판매였다.

루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롬 1:17)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접했을 때 회개의 생활이 시작 되었으며 예수가 요구하는 참된 회개는 개인이 쌓는 보상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세 가톨릭 신학의 중심적인 것들인 면죄부, 사제의 면죄권, 적선행위, 인간의 공로의 교리 등이 거부되었다.<sup>9)</sup>

루터에게서의 회개와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윤법과 복음의 틀에서 보면 죄의 뉘우침인 회개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신앙 그리고 신앙의 생활 순으로 보여 진다. 깔뱅은 그의 출발점이 영원한 선택과 구원의 약속에서 설정된 신비적 연합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sup>10)</sup>

깔뱅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신학자라기 보다는 성경신학자로서 성경을 해석한 사람으로 간주할 때 나젤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용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깔뱅의 사고의 형태까지 지배하였다”<sup>11)</sup>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는

8. 상계서, 41쪽.

9. 루이스 뱸롯, 기독교교리사, 신복윤역(서울: 충신대학출판부, 1979), 252쪽 이하.

10. 회개와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는 학자간에 논란이 많다. 리츨(Ritschl)은 초기 루터는 회개를 신앙의 열매로 보았다고 하였으나 후기 루터는 회개는 윤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앞에 두었다고 하였다. 립시우스(Lipsius)는 이를 부정하고 회개는 죄의 뉘우침으로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루터에게서 회개와 신앙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참조 루이스 뱸롯, 상계서, 253쪽.

칼뱅의 신학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반증해 주는 말이다.

#### • 교회 중심

칼뱅의 신학을 특징 지어주는 것 중의 하나는 교회중심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의 사귐, 선혜받은 자들의 무리 등으로 표현되는 교회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이다.

가톨릭의 교회관은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제도를 가진 교회로서 로마교회와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다. 교회는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대해 신비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신비라 함은 “교회의 본질이 신적 기원이며 초월적이며 또 한 구원의 도구라는 뜻”<sup>12)</sup>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를 의미하는 만민의 빛(lumen gentium)을 말한다. 인간 이성으로 명확히 증명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설명해야 하는 본질적 의미에서의 신비 그 자체이다.

개신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은 교회라는 건물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도직의 계승으로서의 성직 제도를 말하며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Gemeinde)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자신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있다(마 28:20).

칼뱅은 구체적인 예로서 엘리야의 광야교회를 듣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몰리친 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 동굴에 혼자 있음을 고백할 때(왕상 19:10, 14) 바알에게 무릎을 끊지 아니한 7,000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초대교회 역시 펍박을 피해 외형을 가지지 못했으며 교회가 지속해 오는 동안 전쟁과 폭동, 이단의 횡포 속에서 교회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못했으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으로 지속되며 그의 보호로 보전되며 그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지켜 준다는 것이다.<sup>13)</sup>

11. Christoph Strohm, "Das Theologerverständnis bei Calvin und in der frühen reformierten Orthodoxie", i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8. Jahrgang Heft 3, Sep. 2001, Mohr Siebeck, s.311. "Jesus Christus beherrscht nicht nur den Inhalt, sondern auch die Form des Calvinischen Denkens."

12. 박양운, 가톨릭 신학의 어제와 오늘, 기초 신학을 중심으로(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192쪽.

그러므로 교회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다.

2) 교회를 로마교회와 성직자의 자리에 둘 수 없다.

3) 참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찬예식의 집행에 있다. 엘리야(왕상 19:10, 14)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교회이며 교회 안의 적그리스도를 피해 산이나 숲, 호수, 강우, 계곡으로 간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것이다.

4) 하나님이 교회의 견고한 터를 세우시고 인치시며(딤후 2:19) 통치하신다.

그의 진리를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의 빛을 쳐버리면 절은 흑암 속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참 교회의 어떠한 외형도 더 이상 남아 있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벌하시고 참된 자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꽃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다(단 3장).

5) 권위를 상징하는 뾰달린 주교관이나 홀장 등 허식으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

사도의 직을 계승한다는 로마의 교황이나 그가 성별한 주교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목자이며 하나님의 성별된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교회가 아니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톨릭교회는 트렌트 공의회(1545-1563) 이후 교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회의 가시적 조직을 더 강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성사를 받으며 정당한 목자들 특히 교황의 지도하에 모인 사람들의 단체”<sup>13)</sup>로<sup>14)</sup> 이해하고 있다. 깔뱅은 교회의 모습을 단체나 모임이라기보다는 신앙공동체라고 규정하면서 가톨릭교회를 비판한다.

깔뱅은 교회의 직분을 에베소 4장에 근거하여 교회의 지도력을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에게 둔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이다.<sup>15)</sup> 목사는 교인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고 올바른 치리

13. 기독교강요, 제1권, 50쪽.

14. 정하권, 교회론 I, 교회에 관한 실증신학(외판: 분도출판사, 1991), 151쪽 중인: 이 말은 벨라르미노(1542-1621)의 주장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교회는 개신교적인 교회의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외형적인 교황의 지도 하에 모인 목자들의 단체라고 한다.

15. Hans-Helmut Esser,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Calvin’s Social Ethics” in Toward the future of reformed theology, edit. by D. Willis and M. Welker(Cambridge: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369쪽 이하.

를 집행하는 사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고대의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장로는 감독으로서 도덕적인 견책과 권장을 행하는 자들이다.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교회의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로 구별한다.<sup>16)</sup>

### 결언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한국의 교육은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아직 기독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개혁의 원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사회에서 25%를 점유한다고 볼 때 교회를 통한 교육 개혁은 매우 긍정적이며 교회가 시도해야 될 필수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통일을 대비한 현 시점에서 교육의 개혁없이 민족의 염원인 긍정적인 통일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는 대로 깔뱅의 종교개혁은 직접적인 사회개혁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의 연관성을 미루어 보면 교회의 개혁은 결국 사회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sup>17)</sup> 이런 면에서 교회의 개혁은 성경에 기초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 깔뱅은 개혁자들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집대성하였고 슈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의 개혁 경험을 통한 장로교의 원리를 제시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 삶의 원리로 삼았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하나님과 함께(*apud Deo*)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깔뱅이 이렇게 당시의 절대 권력의 기초가 되는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면서 개혁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인문주의적 사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보다 새로운 인간다움을 추구하면서 새 시대의 인간상을 실현하려던 고전의 연구는 그 시대의 지성인들에게 교회 중심적 세계관을 거부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

16. 참조, 깔뱅, 영한 기독교강요, 제4권, 3장, 교회의 교사들과 목사들, 그들의 선택과 직무, 93쪽 이하.

17. 와마나베 노부오, 기독교강요란 어떤 책인가?, 이상규, 임부경 옮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0), 61쪽 이하.

다. 여기에서 고전종의 고전으로 간주되던 성경의 자유스러운 연구는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틀에 박힌 제도적 외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에 의한 개인 고백적인 내면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개인 신앙운동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까지 몰고 가서 국가의 공인아래 종교재판(Inquisition)을 실시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 추방, 재산몰수, 화형, 방화, 협박을 당하였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개혁은 이처럼 어렵다는 말이 된다.

깔뱅이 가톨릭 강요를 쓴 때는 이러한 탄압이 절정에 이른 1530년대 중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피신을 하고 있었으며 깔뱅 역시 제네바에 와서 이러한 소식들을 종교망명자들을 통해 자세히 듣고 있었다.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헌사를 통해 그가 밀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므로 종교재판과 개신교의 탄압으로 인해 자행되는 모든 행위들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판결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조국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며 진리가 수호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묻고 있었다.

깔뱅은 당시 가톨릭교회가 신봉하고 있는 교회의 제도와 교리들을 열거하면서 개신교의 복음주의적 교리와 차별화를 시킨다. 구원을 이루는 길은 면죄부, 고백성사, 적선행위, 인간의 공로 등이다. 동시에 교회의 절대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신비스러운 미사와 성자숭배, 마리아 숭배, 교황숭배 등이다. 이에 대해 깔뱅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유혹이며 복음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까지 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규범과 근거가 되어야 하며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교회가 태생됨을 말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경의 단순성과 성령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된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개혁도 성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구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서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수하게 전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이다. 사도직

제승으로서의 성직제도가 아닌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한 신앙공동체를 말한다.

칼뱅의 교리 체계를 대변하는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의 신학”은 종교적 내면성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활동무대임을 시사하는 “하나님의 선교”<sup>18</sup>를 가능케 하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가톨릭교회가 믿고 신봉하던 교회 안의 영적인 하나님을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모시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사는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칼뱅의 교회 개혁을 위한 신학은 “조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목회적이며 교리문답적인 신학”<sup>19</sup>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지며 동시에 복음주의적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개신교의 개혁을 위한 신앙교리서이기도 하다.<sup>20</sup>

18.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지금까지의 선교의 불의 변화를 갖는다. 선교의 위대한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선교는 1950년까지 교회의 확장과 발전이 곧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되어왔다. 1952년 윌링엔 국제 선교대회에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선교”(고후 5:20)를 밀하게 되었다. 교회적 선교론이 선교적 교회론으로 바뀐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 1)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교회 밖의 세계를 통해서도 역사 하심을 믿는 것이다. 선교의 구조가 하나님-교회-세계에서 하나님-세계-교회로 된다.
- 2) 선교의 대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포함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물을 구원하시는 일이시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세력과 사회구조,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사회, 사상, 종교 등 전체의 구원을 말한다.
- 3) 하나님의 뜻은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현실의 한 복판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메시아적 살림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교회는 세계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사 45:1-3).

하나님의 선교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신앙공동체라고 함이 옳다. 교회는 먼저 한 인간의 내면적인 회개와 구원을 말하며 놀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의 해방과 회복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봉사하기 위해 있다. 특권적인 선택보다 인간화(Humanization)가 있는 혼신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사회적, 육체적 억압에서의 해방과 자유이다.

참조 : K. Müller, Missionstheologie, Eine Einführung, Berlin, 1985, 57f; W. Freytag, Mission im Blick aufs Ende, in: Reden und Aufsätze, Bd. II, München, 1961, 186-196; H. Wagner, Die weite der missio Dei, In memoriam G. F. Vicedom, in: F. W. Katzenbach(Hg.), Verstehen und Antworten, Stuttgart, 1976, 172-189; K. Hartenstein, Theologische Bestimmung, in: W. Freytag(Hg.), 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 Stuttgart, 1952.

19. Christoph Strohm, 상계서, 320쪽 이하.